

케이블 TV의 정기능과 역기능

황근 /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언론학 박사)

☞ 케이블 TV 출범과 그 의미

방송 분야에서 본다면 1995년은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5월에 시작될 지역민영방송과 무궁화위성의 발사는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정보화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돌입을 상징하는 것은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출범이다.

물론 51 개 지역 단위의 종합유선방송이 모두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이르면 이제까지 지상파 방송이 차지하였던 위치를 케이블 TV가 대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그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케이블 TV 가입자가 전체 시청 가구의 2/3를 넘었고, 우리나라 역시 난시청 해소를 위한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에 450만 가구가 넘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

으로도 많은 채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아닌 더 좋은 화면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 가입을 원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형적 평가만 가지고 본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의 문제이지 장기적으로 케이블 TV에 대해서 비교적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케이블 TV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그 자체로 본다면 케이블 TV는 혜택의 가능성이 많은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가 안정된 분야로서 정착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케이블 TV의 기술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새로운 기술이 한 사회에 도입될 때,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우선 논의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이 기술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흔히 기술 평가라고 하는 방법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기술들을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전수할 때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케이블 TV의 예를 들자면, 유선을 통한 전송 방식은 많은 채널, 특히 광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의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선에 의한 전송 방식은 고화질의 화면을 제공하여 지상파 방송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속성에만 근거해 효과를 판단한다면, 케이블 TV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방송 매체로 발전하여 지역 문화와 특수 계층의 문화를 제공하는 유선 TV 방송(narrowcasting)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도입은 지역적·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케이블 TV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매체로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앞서게 된다. 이미 미국의 케이블 TV는 지상파 방송보다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지역간 유선망 사업의 통합에 의하여 도리어 지역 문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케이블 TV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는 기술 그 자체에 의

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회 구성체들의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고 따라서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것이다. 케이블 TV는 기술 그 자체로는 분명히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매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케이블 TV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적 수요는 케이블 TV의 활용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기술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상호 병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능과 역기능을 도식적으로 분리하여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기능인가 역기능인가 판단하는 것도 애매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목적과 여건에 따라 정기능이 될 수도 있고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

■ 케이블 TV의 이중 효과(dual effect)와 사회적 성격

모든 기술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 이중적이다. 예를 들어 핵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이기가 될 수도 있고, 문명의 파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중 효과(dual effect)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먼저 정보화 사회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Daniel Bell이나 Alvin Toffler의 주장은 고도의 정보 기술이 제공해 주는 기술적 혜택에 의하여 산업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던 수단인 생산 기술이 정보 기술로 대체되는 변형된 산업 사회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중 효과가 존재한다. 다양한 채널, 쌍방향성, 선택적 접근 등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기술적 속성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속성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매스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치 권력이 일반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서 활용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케이블 TV 기능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하여야 할 것은 기술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능을 논의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

하여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케이블 TV의 기능을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측면에서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케이블 TV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매체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지상파 방송은 공적 전달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해 산업적 비중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높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케이블 TV를 비롯한 뉴미디어들은 발생 배경부터가 산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출발한 미국의 케이블 TV는 점차 유선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여분을 이용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변화되어 왔다. 케이블 TV가 공적 전달 수단으로 보다는 산업적 분야로 인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블 TV의 산업적 특성은 새롭게 그 매체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980년대 케이블 TV의 도입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된 실험들은 케이블 TV가 공적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현 단계에서 전자의 가능성은 점차 상실되었고, 상업적 매체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케이블 TV의 지역성과 전문성 등의 활용 가능성은 위축되게 됐으며, 그 결과 케이블 TV의 도입에 따른 영상

소프트 산업의 발전, 연관 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적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케이블 TV가 가진 공공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PEG 채널이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무 채널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채널들에 대한 시청률이 극히 미약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정보 산업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그 의미나 중요도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케이블 TV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에서는 공공적 활용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격적 도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케이블 TV의 산업적 의미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물론 겉으로 표명된 목적은 케이블 TV의 많은 채널을 이용하여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송 매체라고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케이블 TV 도입을 통하여 영상 산업과 방송 유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의 조기 진입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상품 가치가 중요해지는 사회, 정보 산업이 핵심 경제 분야로 전환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케이블 TV는 정보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케이블 TV를 이미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케이블 TV의 각 분야별 정기능과 역기능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케이블 TV는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정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이다. 기능이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정기능과 역기능을 논하는 것도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정기능과 역기능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정치 분야

케이블 TV가 새롭게 뉴미디어로서 논의될 때, 가장 큰 기대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가진 '주파수의 희소성'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매스 미디어에 반영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케이블 TV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공하여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 기대는 소위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났다. 특히 쌍방향성에 의한 전자 투표, 전자 여론 조사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예측을 낳게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예측이 케이블 TV의 기술적 특성으로만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정치 전문 채널인 CSPN 2 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채널은 유료 채널이 아니고 공공 채널로서 운영된다. 그 이유는 정치 채널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은 시청률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더 큰 이유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공공 채널의 의무 규정 축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정치적 활용이 기대만큼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공공 채널을 이용한 부분적인 의회 중계 방송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케이블 TV의 정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 측면에 있어 케이블 TV의 기술적 속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은 케이블 TV 정치 전문화 채널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화된 채널이 제공하는 정치 보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의견 형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흔히 조지 오웰이 상상하였던 정보 독점에 의한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케이블 TV 채널이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脫정치화된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 분야

케이블 TV가 경제적 동인에 의하여 발달한 산업적 매체라고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 케이블 TV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케이블 TV를 초기에 경영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케이블 TV의 정착이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케이블 TV가 경제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케이블 TV 도입을 통한 산업적 효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케이블 TV 도입은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 정보 통신 산업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보화 추진의 초석이 될 유선망 사업은 미래 정보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수요보다는 소프트웨어인 영상 산업의 수요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케이블 TV 성패의 열쇠는 대폭 늘어난 채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의 프로그램에 있다. 더구나 그 프로그램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질적 수준과 재미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대 효과는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상 산업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낙관적 전망보다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프로그램 제작 공급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은 막대한 프로그램 공급 능력을 배경으로 영상 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케이블 TV를 포함한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절대 부족이다.

1993년 WTO 체제 출범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시청각 서비스 분야라는 점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50% 이상의 외국 프로그램 방영 비율을 개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개방 압력은 케이블 TV 개국과 더불어 기대하고 있는 영상 산업의 발전은 커녕 외국 프로그램의 범람으로 도리어 영상 산업 기초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 TV의 경제적 기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예민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정책을 모색하는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문화 분야

케이블 TV는 사회·문화적 분화와 다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다원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최대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케이블 TV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문화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기피되었던 고급 문화의 활성화

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기대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수용자 주권 시대”라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31 개 채널이 일부 중복 채널을 제외하고 사회·문화적 다원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 다원화 정책이 케이블 TV의 경제적 원리 즉, 수용자의 “직접 부담 방식”에 의하여 운영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은 몇 개의 오락 채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 채널이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채널의 양적 팽창이 문화의 다원성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케이블 TV의 사회·문화적 역기능은 채널의 다원성이 사회 구성원들간의 공통 경험을 도리어 축소시킴으로써 공통의 유대감이나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이 결여되어 도리어 대중 사회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케이블 TV의 양방향성과 수용자들 사이의 직접 의사 소통을 증대시켜 미래 정보화 사회가 1차 유대 집단의 재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지역화

문화 사회 학자인 Raymond Williams는

1970년대 중반 “Television”이라는 책에서 케이블 TV는 기존의 방송이 파괴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키는 지역 단위 매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물론 그러한 기대는 미국의 케이블 TV가 초기 지역 단위로 발전하였고, 지역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 일부 기여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 TV가 실제로 지역 매체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케이블 TV가 경영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고,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이나 경영에 있어 복합 경영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의 케이블 TV 사업은 여러 지역의 방송사를 복합적으로 소유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는 특징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창구의 다원화’ 정책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근자에 미국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복합 및 합병 현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매체로서 케이블 TV의 역할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며, 케이블 TV가 가진 경제적 특성에 의하여 지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해 최대 사용자 확보를 위한 보편 문화를 지향해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역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

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맺음말

이와같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케이블 TV의 기능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초기 케이블 TV에 대한 논의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케이블 TV의 기능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활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뉴미디어들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TV 사업에 경제적 활용 목적과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한 활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 TV의 기술적 혜택이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케이블 TV 도입에 따른 사회 정책적 목적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블 TV의 경제적 특성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케이블 TV의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적절하게 조화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정책적 고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리인 아바도, 독일의 자존심인 베를린 음악감독으로 재선임의 의미

강일모 / 문화일보 문화부

세계 최강 오케스트라중의 하나이자 독일의 음악적 자존심으로 불리는 베를린필의 음악감독으로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재선임됐다. 이로써 이태리인 아바도는 신나치주의와 외국인 테러 및 배척 운동이 빈발하고 있는 독일에서 오는 2002년까지 베를린필을 계속 맡게 된다.

독일인들은 왜 음악적 자부심을 버리고 이태리 출신 아바도를 선임했을까? 그 해답은 간단치 않다.

베를린 필은 1882년 창단된 이래 지난 113년간 아바도를 포함해 단 5명의 음악감독만을 허용하는 극히 보수적 운영 방침을 고수해 왔다. 특히 아바도 이전에는 1대 지휘자 한스 폰 뷔로우, 2대 아르투르 니키쉬, 3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4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모두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이었다.

카라얀은 56년부터 베를린필의 종신 음악감독에 지명된 후 전세계 명승지에 별장을 가지고 자가용 제트기로 날아다니며 평생토록 부와 명예를 누렸다. 그러나 그는 생의 마지막 부분을 심한 독선으로 베를린필 단원들과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이에 단원들은 베를린필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를 통해 아바도를 뽑았다. 아바도는 단원들에게 주문하기보다는 단원들의 의견을 듣기 좋아하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독일이 자존심을 버리고 외국인을 지휘자로 선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좋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는 좋은 지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독일인 지휘자를 고집하다가는 베를린필의 명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세계 지휘계에는 독일 출신 지휘자들의 활약이 미미하다. 대신 아바도를 비롯해 리카르도 무티, 리카르도 샤이 등 이태리 출신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지휘자는 음악회에서 실제 소리를 내지 않아 연주자보다 쉽게 보인다. 모짜르트와 하이든이 활약하던 고전시대에는 지휘자가 연주회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었다. 지휘자는 후기 낭만시대에 이르러 말러 등

에 의해 악곡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 리듬과 화성이 복잡해지면서 각 연주자들이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며 연주하기 어렵게 되자 소규모 악곡에서조차 지휘자가 필요하게 됐다.

베를린필이 1백 년이 넘는 전통을 버리면서까지 능력있는 외국인 지휘자를 찾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말로만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키워야한다며 외국인 지휘자 선임에는 극히 부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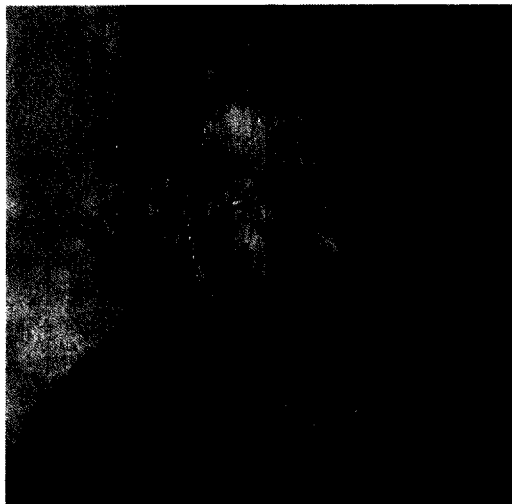
독일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인구가 살고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서울시는 교향악단 운영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서울시향단원들은 자신들을 한차원 높여줄 수 있는 능력있는 외국인 지휘자를 원해왔지만 서울시 당국은 산하단체의 일개 지휘자가 서울시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로 외국인 지휘자 선임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세계화란 우리만 외국을 향해 무모한 공격 경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외국인들을 불러들여 겸손하게 배우며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본다.♣

95년 3월에 열리는 주요 음악회

- '95년 교향악축제', KBS 교향악단 연주회: 7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지휘 오토미 마가, 바이올린 양성식
- 리차드 클레이더만 피아노 연주회: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소프라노 조수미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공연: 15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 '95년 교향악축제', 서울시향 연주회: 17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지휘 원경수, 피아노 신수정, 조숙현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20일,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협연 소프라노 조수미
- 미샤 마이스키 첼로 독주회: 31일 예술의 전당

.....
고전명화의 감상



폴 세잔느작 (자화상) 1879. 유화, (35×27cm)
 영국 런던 테이트 갤러리 소장

● **이영재 / 미술평론가**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인 폴 세잔느는 지중해 연안의 엑상 프로방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었을 때 낭만주의 미술에 심취하였는데 드라크로와는 늘 그가 존경하던 화가였다. 그러나 1861년 파리에 오게 되면서 그는 마네 류의 밝은 색채로 가득한 화풍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네와 같은 인상주의자들처럼 점차 밝은 색채 위주의 바깥 풍경들을 그리곤 하였다. 그러나 마네와 같은 인상주의자들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자연의 단편들을 그렸다면 세잔느는 보다 더 형태감 있고 지속성을 띤 그림들을 그리고자 하였다. 형태와 색채의 하모니는 그가 늘 그림에서 관심을 기울인 영역이었다. 그는 회화를 건축과

같은 것으로 보고 화가가 붓을 칠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잔느가 1879년에 그린 '자화상'에서 우리는 이와같은 그 자신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의 자화상에서 우리는 그가 형태와 색채의 조화에 상당한 고심을 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는 이와같은 형태와 색채의 탐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사물의 이면에 놓인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에서의 모든 형상들은 원, 원통 그리고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다. 이와같이 그가 설정한 방법론은 '자화상'과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의 정물이나 풍경 등에서도 변함없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원리는 자연 속에 궁극적으로 놓여 있는 질서라고 보고 세잔느는 개별적인 대상들에서 이러한 조형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그림은 이와같은 자연의 조형적 질서를 캔버스라는 또 다른 공간에 다시금 번역된 형상들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잔느는 인물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고유색을 무시하고 새롭게 다양한 색의 조화를 실현한다. 그것은 자연에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색채들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구현되는 화면의 색채들이었다. 이를 통해 세잔느는 자연의 현상적 색채를 무시하고 마치 음악과도 같이 새로운 색채의 하모니를 실현할 수 있었고 이와같은 그의 이념은 이후 20세기 회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 **전시회 정보** ●

- ※ 한국미술 2000년대 주역 대표작展 제3부(입체) / 2.27~3.13 / 문화일보 갤러리
- ※ 삶과 미술의 동반전(개관 5주년 기념 기획 초대) / 3.8~4.11 / 코스모스 갤러리
- ※ 김명희 개인전 / 3.15~3.21 / 종로 갤러리
- ※ 류종상 개인전 / 3.13~3.24 / 갤러리 마을